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관련 행태, 인식 및 선호음식 양상 분석

소 지 선 · 한 성 립[†]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Diet-related Behaviors, Perception and Food Preferen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ietnamese Wives

Jisun So, Sung Nim Ha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Multicultural Human Ecology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Korean society has gone through a dramatic change in its population, with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since 1990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in three areas related to dietary behaviors: diet-related behaviors and perception, and food preferences. A cross-sec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in 500 Koreans from Korean families and 104 couples from th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ietnamese wives. More subjec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rew up in the countryside, received less education and also had lower income than the subjects from Korean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ate traditional Korean meals more often at home and dined out less often than Korean families. The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more attention on nutritional aspects of their diets than Korean families. The Vietnamese wives in multicultural families favored Vietnamese foods but they rarely ate those foods in Korea despite an easy accessibility to Vietnamese ingredients. In conclusi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had more traditional Korean dietary patterns than Korean families, which could have been influenced by their socioeconomic factors. Further research with a quantitative analysis is needed in future studie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dietary patterns on nutri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multicultural and Korean families. (*Korean J Community Nutr* 17(5) : 589~602, 2012)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 diet-related behaviors · diet-related perception

서 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90년대 이래로 (1993년 약 66,000명) 현재까지 (2011년 12월 약 140만명)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또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12월 현재 약 14만명) 이민자들의 국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 중 베트남 여성은 2011년 12월 현재 약 37,000명으로, 중국계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하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1).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Hiroyasu 등 1989; He 등 1996; Huang 등 1996; Yang & Read 1996; Yang 등 2007),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은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영양 및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이주 후 바로 한국의 문화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편입되는 한국인가정 내에서 가사 및 식사준비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식생활은 매우

접수일: 2012년 7월 17일 접수

수정일: 2012년 9월 24일 수정

채택일: 2012년 10월 5일 채택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ulticultural Human Ecology Cente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ng Nim Ha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02) 880-6836, Fax: (02) 884-0305

E-mail: snhan@snu.ac.kr

부자연스러운 변화 가운데 놓여져 있다. Lyu 등 (2009), Kim & Lee (2009) 및 Kim 등 (2009)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주체적이지 못한 식품선택과 베트남 음식을 접할 기회 부족에 따른 결과로 모국음식을 섭취하는 빈도가 월 1~2회 미만 정도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하루 세 끼 한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 에너지 필요 추정량보다 낮게 섭취하는 비율이 89%에 이르며, 평균필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50%가 넘는 영양소도 철,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₂, 칼슘, 비타민 C, 엽산 등으로 영양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09). Lyu 등 (2009)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490 kcal로 동일 연령대의 한국인 에너지 필요추정량(2,100 kcal)과 베트남 영양권장량(2,200 kcal)보다 낮게 섭취하고 있으며, 이를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40~50세 남녀의 영양섭취실태를 보고한 Hanh 등 (200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도심지역(1,932 kcal)과 교외지역(1,755kcal)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들(1,475kcal)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Kim & Lee (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각 식품군에서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아 식이섭취에 소홀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Cho (2010)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이민 전후의 식사패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식품군의 다양성, 식사의 질(DQI-I) 등이 이민 후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식생활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쉽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Turrell & Kavanagh 2005; Raberg Kjøllesdal 등 2010) 결혼이주여성들이 편입된 가정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식생활 변화를 겪고 있는 주체인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으로, 한국인 남편의 식생활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의 식생활관련 행태, 의식, 선호음식 양상을 한국인기혼 여성 및 남성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다문화가정의 사회환경적 특성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의 식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식생활 양상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의 주관 하에 2009년 1차 조사와 2010년 2차 조사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정의 20~60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의 4개 권역(강북동/강북서/강남동/강남서)별 균등한 비율로 각 성별, 연령대별 50명씩, 총 500명을 모집하였으며, 2009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베트남 아내 부부 104쌍, 총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7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다른 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1차와 2차 조사가 모두 계절적으로 여름에 이루어졌기에 식이섭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건강 및 식생활관련 행태, 식생활관련 인식,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식생활, 선호음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한국인 기혼 남녀, 다문화가정의 부부 모두 각자의 설문지에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대상자에게는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한국어 설문지와 함께 베트남어 설문지도 배포하였다. 설문문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program(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을 사용하여 조사항목별로 평균 ± 표준편차 또는 %(number)로 표시하였다. 종속변수가 이산변수인 그룹간 비교는 chi-square test로, 연속변수의 그룹간 비교는 정규성의 확인 후 student's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p < 0.05$ 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인가정의 한국인과 다문화가정 부부(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은 한국인가정의 경우 각 연령대가 20.0%(100명)씩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20대 이하 35.1%(73명), 30대 23.6%(49명), 40대 35.6%(74명), 50대 4.3%(9명), 60대 이상 1.4%(3명)이었다. 16세 때의 성장지역의 경우, 수도와 수도 외 대도시의 비율이 한국인가정과 다문화가정에서 각각 54.4%(242명)와 37.5%(78명)이었

Table 1. Questionnaire

General characteristics	Age
	Size of the city where they lived during the childhood
	Education
	Job
	Household Income (won/month)
	Height (cm)
	Weight (kg)
	BMI (kg/m ²)
Health & Diet-related behaviors	Hours of sleep (hr/day)
	Regular exercise
	Dietary supplement consumption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of drinking (/month)
	Meals eaten at home (/day)
	Korean meals eaten at home
	Meals prepared at home
	Frequency of dining out
	Methods of acquiring Kimchi
	Methods of acquiring Korean sauces
Diet-related perceptions	Factors considered when buying foods
	Sources of diet-related information
	Concern about safety & freshness of foods
	Concern about balance of diet
	Concern about excessive intake of calories, salt, and fat
Food preferences	Five most preferred foods
Dietary condition of Vietnamese wives in Korea	Factors contributing to difficulties in living in Korea
	Ability to use money freely
	Amount of money able to use freely
	Monthly expenditure on food
	Percentage of food expenditure used for purchasing Vietnamese food ingredients
	Frequency of Vietnamese food consumption (At home/ dine out)
	Ability to obtain Vietnamese food ingredients
	Market accessibility for Vietnamese food ingredients

고, 읍·면지역의 비율도 각각 30.1% (155명)와 40.9% (85명)로 분포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 < 0.001$).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한국인가정이 10.8% (54명), 다문화가정이 35.9% (54명)이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각 40% (200명)와 17.3% (36명)로 한국인가정의 교육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사이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남편 12.5% (13명), 아내 39.4% (41명)로,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p < 0.001$). (표로 제시하지 않음) 취업률은 각 가정의 남성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간에는 한국인가정의 여성이 베트남인 아내보다 유의적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p < 0.001$). (표로 제시하지 않음) 월 평균 가계소득수준의 경우는 300만원 미만

인 비율이 한국인가정 43.2% (166명), 다문화가정 73.5% (153명)로 전반적으로 한국인가정의 소득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신장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한국인가정이 유의적으로 컸고 ($p < 0.001/p < 0.01$), 체중은 한국인가정의 여성이 베트남 아내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BMI는 남성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인가정보다, 여성은 한국인가정이 다문화가정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p < 0.001$).

2. 한국인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비교

1차 조사의 한국인가정과 2차 조사의 다문화가정의 연령 분포에 차이가 있으며, 식생활은 연령 및 성별에 의한 영향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s and multicultural families¹⁾

	Koreans (n = 500)	Multicultural families (n = 208)	χ^2			
Age						
< 30	20.0 (100)	35.1 (73)	87.30***			
< 40	20.0 (100)	23.6 (49)				
< 50	20.0 (100)	35.6 (74)				
< 60	20.0 (100)	4.3 (9)				
≥ 60	20.0 (100)	1.4 (3)				
Size of the city where they lived during the childhood						
Capital city (Seoul/Hanoi)	39.4 (197)	21.2 (44)	23.12***			
Other big cities	15.0 (75)	16.3 (34)				
Smaller cities	14.6 (73)	21.6 (45)				
Countryside	31.0 (155)	40.9 (85)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3.0 (15)	19.1 (19)	47.85***			
Middle school	7.8 (39)	16.8 (35)				
High school	49.2 (246)	56.7 (118)				
College	39.0 (195)	17.3 (36)				
≥ Graduate school	1.0 (5)	0 (0)				
Job						
Yes	69.0 (345)	59.1 (123)	8.22*			
No	30.4 (152)	40.9 (85)				
No response	0.6 (3)	0 (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 100	12.0 (10)	10.1 (21)	172.64***			
100 – 199	7.6 (38)	26.9 (56)				
200 – 299	23.6 (118)	36.5 (76)				
300 – 399	29.8 (149)	14.9 (31)				
400 – 499	24.4 (122)	1.9 (4)				
500 – 599	7.6 (38)	1.0 (2)				
600 – 699	3.4 (17)	0 (0)				
≥ 700	1.6 (8)	3.8 (8)				
No response	0 (0)	4.8 (10)				
	Korean male in Korean family (n = 250)	Korean husband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	Korean female in Korean family (n = 250)	Vietnamese wive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
Height (cm)	173.7 ± 4.4	170.3 ± 5.9	5.245***	160.1 ± 4.7	158.4 ± 4.3	3.148**
Weight (kg)	70.6 ± 6.5	70.0 ± 10.6	0.571	56.4 ± 6.5	50.5 ± 5.3	8.034***
BMI (kg/m ²)	23.4 ± 2.0	24.1 ± 3.1	-2.118*	22.0 ± 0.2	20.2 ± 2.1	6.729***

1) Values are % (number) except height, weight, and BMI which are Mean ± SD

*: p < 0.05, **: p < 0.01, ***: p < 0.001

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분포 차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성의 경우 한국인가정의 남성 중 다문화가정의 남편 연령대(30, 40대)를 추출하여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비교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가정의 여성 중 다문화가정의 아내 연령대(30대 이하)를 추출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내와 비교하였다.

1) 한국인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건강 및 식생활관련 행태 비교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과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건강 및 식생활관련 행태를 비교한 결과(Table 3), 음주빈도를 제외한 건강행태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음주빈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의 비율이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은 94.3%(83명), 다문화가정의 남편은

Table 3. Diet & health-related behaviors (males)¹⁾

	Korean males in Korean family (n = 250)	Korean husband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χ^2	30, 40's Korean males in Korean family (n = 100)	Korean husbands of multicultural family (n=104)	χ^2
Hours of sleep (hr/day)						
≤ 5	17.2 (18)	9.6 (10)	6.32	5.0 (5)	9.6 (10)	9.81
6	31.2 (78)	20.2 (21)		31.0 (31)	20.2 (21)	
7	38.4 (94)	43.3 (45)		49.0 (49)	43.3 (45)	
8	20.8 (52)	26.0 (27)		14.0 (14)	26.0 (27)	
9	1.2 (3)	0 (0)		1.0 (1)	0 (0)	
10	1.2 (3)	1.0 (1)		0 (0)	1.0 (1)	
Regular exercise						
Yes	32.8 (82)	24.0 (25)	2.67	28.0 (28)	24.0 (25)	0.42
No	67.2 (168)	76.0 (79)		72.0 (72)	76.0 (79)	
Dietary supplement consumption						
Yes	28.0 (70)	23.1 (24)	0.91	26.0 (26)	23.1 (24)	0.235
No	72.0 (180)	76.9 (80)		74.0 (74)	76.9 (80)	
Alcohol consumption						
Yes	86.0 (215)	80.8 (84)	1.53	88.0 (88)	80.8 (84)	2.015
No	14.0 (35)	19.2 (20)		12.0 (12)	19.2 (20)	
Frequency of drinking (/month)						
< 1	3.7 (8)	22.6 (19)	26.26***	5.7 (5)	22.6 (19)	10.27**
≥ 1	96.3 (207)	77.4 (65)		94.3 (83)	77.4 (65)	
Total	215	84		88	84	
Meals eaten at home (/day)						
0	5.2 (13)	1.9 (2)	50.11***	6.0 (6)	1.9 (2)	37.96***
1	54.0 (135)	17.3 (18)		55.0 (55)	17.3 (18)	
2	22.0 (55)	52.9 (55)		22.0 (22)	52.9 (55)	
3	18.8 (47)	27.9 (29)		17.0 (17)	27.9 (29)	
Korean meals eaten at home						
< 20%	0.8 (2)	0 (0)	23.49***	0 (0)	0 (0)	17.96**
20 – 40%	0.8 (2)	0 (0)		1.0 (1)	0 (0)	
40 – 60%	7.6 (19)	0 (0)		5.0 (5)	0 (0)	
60 – 80%	20.8 (52)	14.4 (15)		29.0 (29)	14.4 (15)	
80 – 95%	44.4 (111)	37.5 (39)		39.0 (39)	37.5 (39)	
> 95%	25.6 (64)	48.1 (50)		26.0 (26)	48.1 (50)	
Meals prepared at home						
< 20%	1.6 (4)	0 (0)	21.74***	1.0 (1)	0 (0)	17.94**
20 – 40%	0.8 (2)	1.9 (2)		0 (0)	1.9 (2)	
40 – 60%	10.0 (25)	2.9 (3)		8.0 (8)	2.9 (3)	
60 – 80%	24.0 (60)	12.5 (13)		28.0 (28)	12.5 (13)	
80 – 95%	38.0 (95)	36.5 (38)		38.0 (38)	36.5 (38)	
> 95%	25.6 (64)	46.2 (48)		25.0 (25)	46.2 (48)	
Frequency of dining out						
Almost everyday	0.4 (1)	0 (0)	4.44	0 (0)	0 (0)	4.973
4 – 6 times /week	0 (0)	1.0 (1)		0 (0)	1.0 (1)	
1 – 3 times/ week	13.2 (33)	9.6 (10)		14.0 (14)	9.6 (10)	
1 – 3 times/month	68.0 (170)	66.3 (69)		73.0 (73)	66.3 (69)	
Rarely	18.4 (46)	23.1 (24)		13.0 (13)	23.1 (24)	
Methods of acquiring Kimchi						
Self-made	62.0 (155)	46.2 (48)	27.41***	59.0 (59)	46.2 (48)	18.86**
Purchase	5.2 (13)	21.2 (22)		3.0 (3)	21.2 (22)	
Obtain from relatives	32.4 (81)	30.8 (32)		37.0 (37)	30.8 (32)	
etc.	0 (0)	1.9 (2)		0 (0)	1.9 (2)	
No response	0.4 (1)	0 (0)		1.0 (1)	0 (0)	
Methods of acquiring Korean sauces						
Self-made	20.0 (50)	12.5 (13)	11.79**	6.0 (6)	12.5 (13)	11.05*
Purchase	40.0 (100)	51.0 (53)		44.0 (44)	51.0 (53)	
Obtain from relatives	39.2 (98)	32.7 (34)		49.0 (49)	32.7 (34)	
etc.	0.4 (1)	3.8 (4)		0 (0)	3.8 (4)	
No response	0.4 (1)	0 (0)		1.0 (1)	0 (0)	

1) Values are % (number)

*: p < 0.05, **: p < 0.01, ***: p < 0.001

77.4%(65명)로 한국인가정의 남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음주빈도를 보였다($p < 0.01$).

식생활관련 행태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와 가정에서 한식을 먹는 횟수 모두 다문화가정의 남편이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 < 0.001/p < 0.01$), 이 때 다문화가정의 남편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는 대개 2회 이상이었고 그 중 한식을 먹는 비율은 대부분 80%이상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직접 준비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도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경우 46.2%(48명)이 95%이상으로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p < 0.01$).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와 장류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김치의 경우 다른 면에서는 유사하나 다문화가정이 한국인가정에 비해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분포의 차이가 있었고($p < 0.01$), 장류의 경우도 다른 면에서는 유사하나 다문화가정이 한국인가정에 비해 직접 만드는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한국인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건강 및 식이관련 행태는 Table 4와 같다. 건강관련 행태 중 평균 수면시간은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의 경우 7시간이 39.0%(39명)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은 8시간(38.5%, 40명)이 가장 많아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수면시간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은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30.0%, 30명)이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17.3%, 18명)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음주에 있어서는 음주율 및 음주 빈도 모두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이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모두 $p < 0.001$).

식생활관련 행태들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와 가정에서 한식을 먹는 횟수 모두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이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p < 0.001/p < 0.01$), 이 때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와 그 중 한식을 먹는 횟수는 남편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가정에서 직접 준비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 또한,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이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외식 빈도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p < 0.001$),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외식 빈도를 보이는 하나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은 거의 외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40.4%(42명)에 이르는 등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에 비해서도 외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와 장류를 마련하는 방

법도 두 가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김치의 경우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은 대부분 친척에게 얻거나 직접 만들었으나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은 구입하는 비율이 21.2%(22명)나 되었다. 장류는 두 가정 모두 구입하거나 친척에게 얻었지만, 직접 만드는 비율이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가정의 여성보다 약간 높았다.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다문화가정이 한국인가정보다 높은 비율로 가정에서 직접 준비한 한식으로 구성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전통적인 한국식 식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2) 한국인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식생활관련 인식 비교

30대,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과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식생활관련 의식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음식 선택 시 최우선으로 하는 요인은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과 다문화가정의 남편 모두 ‘맛이 좋은 것’을 각각 64.0%(64명), 60.6%(63명)로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에 좋은 것’이 각각 35.0%(35명), 35.6%(37명)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남편 중에서는 ‘값이 싼 것’을 최우선 요인으로 본다는 의견(3.8%, 4명)이 있어 두 가정 간에 유의적인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p < 0.05$). 식생활관련 의식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의식은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의 경우 ‘약간 신경쓴다’ 67.0%(67명), ‘많이 신경쓴다’ 21.0%(21명) 순이었지만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경우 ‘많이 신경쓴다’ 59.2%, ‘약간 신경쓴다’ 34.6%순으로 한국인가정의 남성에 비해 의식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하루 식사 균형에 대한 의식은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은 ‘약간 신경쓴다’ 63.0%(63명), ‘거의 신경안쓴다’ 19.0%(19명), ‘많이 신경쓴다’ 14.0%(14명)순이었고, 다문화가정의 남편은 ‘약간 신경쓴다’ 44.2%(46명), ‘거의 신경안쓴다’ 28.8%(30명), ‘많이 신경쓴다’ 25.0%(26명)순으로 유의적으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p < 0.05$). 마지막으로 열량·염분·당분·지방 등의 과다 섭취에 대한 의식은 두 가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식생활관련 의식 비교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음식 선택 시 최우선으로 하는 요인은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은 ‘맛이 좋은 것’이 우선인데 비해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은 ‘건강에 좋은 것’이 우선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식생활관련 의식 중에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의식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은 ‘약간 신경쓴다’ 51.0%

Table 4. Diet & health-related behaviors (females)¹⁾

	Korean females in Korean family (n = 250)	Vietnamese wive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χ^2	Under 30's Korean females in Korean family (n = 100)	Vietnamese wive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χ^2
Hours of sleep (hr/day)						
≤ 5	10.8 (27)	6.7 (7)	29.22***	4.0 (4)	6.7 (7)	17.68**
6	26.8 (67)	14.4 (15)		25.0 (25)	14.4 (15)	
7	33.6 (84)	25.0 (26)		39.0 (39)	25.0 (26)	
8	24.8 (62)	38.5 (40)		27.0 (27)	38.5 (40)	
9	2.4 (6)	3.8 (4)		4.0 (4)	3.8 (4)	
10	1.6 (4)	11.5 (12)		1.0 (1)	11.5 (12)	
Regular exercise						
Yes	23.2 (58)	13.5 (14)	4.30*	12.0 (12)	13.5 (14)	0.098
No	76.8 (192)	86.5 (90)		88.0 (88)	86.5 (90)	
Dietary supplement consumption						
Yes	42.8 (107)	17.3 (18)	20.90***	30.0 (30)	17.3 (18)	4.56*
No	57.2 (143)	82.7 (86)		70.0 (70)	82.7 (86)	
Alcohol consumption						
Yes	46.4 (116)	18.3 (19)	24.64***	52.0 (52)	18.3 (19)	25.56***
No	53.6 (134)	81.7 (85)		48.0 (48)	81.7 (85)	
Frequency of drinking (/month)						
< 1	16.4 (19)	73.7 (14)	29.03***	19.2 (10)	73.7 (14)	18.44***
≥ 1	83.6 (97)	26.3 (5)		80.8 (42)	26.3 (5)	
Total	116	19		52	19	
Meals eaten at home (/day)						
0	3.2 (8)	0 (0)	43.45***	3.0 (3)	0 (0)	60.54***
1	36.0 (90)	4.8 (5)		51.0 (51)	4.8 (5)	
2	28.0 (70)	37.5 (39)		21.0 (21)	37.5 (39)	
3	32.8 (82)	57.7 (60)		25.0 (25)	57.7 (60)	
Korean meals eaten at home						
< 20%	0 (0)	1.0 (1)	22.86***	0 (0)	1.0 (1)	21.50**
20 – 40%	1.2 (3)	1.9 (2)		3.0 (3)	1.9 (2)	
40 – 60%	3.6 (9)	11.5 (12)		7.0 (7)	11.5 (12)	
60 – 80%	20.8 (52)	12.5 (13)		27.0 (27)	12.5 (13)	
80 – 95%	46.0 (115)	29.8 (31)		45.0 (45)	29.8 (31)	
> 95%	28.4 (71)	43.3 (45)		18.0 (18)	43.3 (45)	
Meals prepared at home						
< 20%	0 (0)	3.8 (4)	19.41**	0 (0)	3.8 (4)	19.06**
20 – 40%	1.6 (4)	4.8 (5)		4.0 (4)	4.8 (5)	
40 – 60%	8.4 (21)	5.8 (6)		10.0 (10)	5.8 (6)	
60 – 80%	18.0 (45)	13.5 (14)		21.0 (21)	13.5 (14)	
80 – 95%	44.8 (112)	33.7 (35)		49.0 (49)	33.7 (35)	
> 95%	27.2 (68)	38.5 (40)		16.0 (16)	38.5 (40)	
Frequency of dining out						
Almost everyday	0.8 (2)	1.9 (2)	13.19*	1.0 (1)	1.9 (2)	27.79***
4 – 6 times/week	1.2 (3)	1.9 (2)		2.0 (2)	1.9 (2)	
1 – 3 times/week	13.2 (33)	15.4 (16)		25.0 (25)	15.4 (16)	
1 – 3 times/month	60.4 (151)	40.4 (42)		63.0 (63)	40.4 (42)	
Rarely	24.4 (61)	40.4 (42)		9.0 (9)	40.4 (42)	
Methods of acquiring Kimchi						
Self-made	64.8 (162)	46.2 (48)	33.86***	30.0 (30)	46.2 (48)	24.42***
Purchase	4.0 (10)	21.2 (22)		7.0 (7)	21.2 (22)	
Obtain from relatives	3.04 (76)	30.8 (32)		62.0 (62)	30.8 (32)	
etc.	0 (0)	1.9 (2)		0 (0)	1.9 (2)	
No response	0.8 (2)	0 (0)		1.0 (1)	0 (0)	
Methods of acquiring Korean sauces						
Self-made	27.2 (68)	12.5 (13)	22.05***	4.0 (4)	12.5 (13)	25.13***
Purchase	36.0 (90)	51.0 (53)		31.0 (31)	51.0 (53)	
Obtain from relatives	35.6 (89)	32.7 (34)		63.0 (63)	32.7 (34)	
etc.	0 (0)	3.8 (4)		0 (0)	3.8 (4)	
No response	1.2 (3)	0 (0)		2.0 (2)	0 (0)	

1) Values are % (number)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5. Diet-related perceptions (males)¹⁾

	Korean males in Korean family (n = 250)	Korean husband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χ^2	30, 40's Korean males in Korean family (n = 100)	Korean husband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χ^2
Factors considered when buying foods						
Taste	48.4 (121)	60.6 (63)	11.58**	64.0 (64)	60.6 (63)	8.00*
Healthiness	48.0 (120)	35.6 (37)		35.0 (35)	35.6 (37)	
Price	0.8 (2)	3.8 (4)		0 (0)	3.8 (4)	
Korean tradition	2.8 (7)	0 (0)		1.0 (1)	0 (0)	
Sources of diet-related information						
School	1.2 (3)	1.9 (2)	3.48	3.0 (3)	1.9 (2)	1.60
Book/ TV / newspaper	64.0 (160)	61.5 (64)		64.0 (64)	61.5 (64)	
Internet	1.2 (3)	1.9 (2)		3.0 (3)	1.9 (2)	
Doctor/dietitian	3.2 (8)	1.9 (2)		1.0 (1)	1.9 (2)	
Family/ friends	30.4 (76)	31.7 (33)		29.0 (29)	31.7 (33)	
etc.	0 (0)	1.0 (1)		0 (0)	1.0 (1)	
Concern about safety& freshness of foods						
Never	0.4 (1)	0 (0)	38.24***	1.0 (1)	0 (0)	33.80***
Rarely	8.4 (21)	5.8 (6)		8.0 (8)	5.8 (6)	
A little	63.6 (159)	34.6 (36)		67.0 (67)	34.6 (36)	
A lot	25.6 (64)	59.6 (62)		21.0 (21)	59.6 (62)	
No response	2.0 (5)	0 (0)		3.0 (3)	0 (0)	
Concern about balance of diet						
Never	0.8 (2)	1.9 (2)	14.89**	1.0 (1)	1.9 (2)	11.98*
Rarely	17.2 (43)	28.8 (30)		19.0 (19)	28.8 (30)	
A little	63.2 (158)	44.2 (46)		63.0 (63)	44.2 (46)	
A lot	16.8 (42)	25.0 (26)		14.0 (14)	25.0 (26)	
No response	2.0 (5)	0 (0)		3.0 (3)	0 (0)	
Concern about excessive intake of calories, salt, and fat						
Never	0.8 (2)	3.8 (4)	9.45	1.0 (1)	3.8 (4)	6.77
Rarely	19.2 (47)	24.0 (25)		24.0 (24)	24.0 (25)	
A little	56.3 (138)	44.2 (46)		52.0 (52)	44.2 (46)	
A lot	23.7 (58)	27.9 (29)		20.0 (20)	27.9 (29)	
No response	2.0 (5)	0 (0)		3.0 (3)	0 (0)	

1) Values are % (number)

*: p < 0.05, **: p < 0.01, ***: p < 0.001

(51명), ‘많이 신경쓴다’ 44.0% (44명) 순인데 비해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은 반대로 ‘많이 신경쓴다’ 71.2% (74명), ‘약간 신경쓴다’ 25.0% (26명) 순으로 두 가정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하루 식사의 균형에 대한 의식 또한,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은 ‘약간 신경쓴다’ 32.0%, ‘많이 신경쓴다’ 53.0% 순인 반면,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많이 신경쓴다’ 71.2%, ‘약간 신경쓴다’ 25.0% 순으로 의식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 열량 · 염분 · 당분 · 지방 등의 과다 섭취에 대한 의식은 여성의 경우에도 두 가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한국인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음식선호도 비교

한국인가정의 한국인과 다문화가정 부부의 선호음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5가지를 중복응답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그 결과 15위까지의 순위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30, 40대 한국인가정의 남성의 경우 1위 된장찌개, 2위 김치찌개, 3위 냉면, 4위 갈치조림, 해물탕, 6위 삼겹살, 청국장, 8위 미역국, 김치, 돼지갈비, 고등어조림, 육개장, 생선회, 잡채, 족발의 순이었다.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경우는 1위 김치찌개, 2위 된장찌개, 삼겹살, 4위 김치, 5위 닭고기, 7위 김, 생선, 9위 감자탕, 돼지고기, 돼지갈비, 동태찌개, 매운탕, 순댓국, 생선구이, 회, 해물탕의 순으로 30, 40

Table 6. Diet-related perceptions (females)¹⁾

	Korean females in Korean family (n = 250)	Vietnamese wive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χ^2	Under 30's Korean females in Korean family (n = 100)	Vietnamese wive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χ^2
Factors considered when buying foods						
Taste	44.4 (111)	34.6 (36)	3.31	50.0 (50)	34.6 (36)	18.57***
Healthiness	51.2 (128)	60.6 (63)		45.0 (45)	60.6 (63)	
Price	0.4 (1)	1.0 (1)		1.0 (1)	1.0 (1)	
Korean traditional	4.0 (10)	3.8 (4)		4.0 (4)	3.8 (4)	
Sources of diet-related information						
School	2.4 (6)	3.8 (4)	9.28	1.0 (1)	3.8 (4)	12.04*
Book/ TV / newspaper	59.2 (148)	49.0 (51)		64.0 (64)	49.0 (51)	
Internet	1.6 (4)	0 (0)		2.0 (2)	0 (0)	
Doctor/dietitian	2.4 (6)	7.7 (8)		3.0 (3)	7.7 (8)	
Family/ friends	34.4 (86)	39.4 (41)		30.0 (30)	39.4 (41)	
etc.	0 (0)	0 (0)		0 (0)	0 (0)	
Concern about safety& freshness of foods						
Never	0 (0)	0 (0)	16.98**	0 (0)	0 (0)	17.81***
Rarely	3.2 (8)	3.8 (4)		3.0 (3)	3.8 (4)	
A little	47.6 (119)	25.0 (26)		51.0 (51)	25.0 (26)	
A lot	48.4 (121)	71.2 (74)		44.0 (44)	71.2 (74)	
No response	0.8 (2)	0 (0)		2.0 (2)	0 (0)	
Concern about balance of diet						
Never	0 (0)	0 (0)	20.06***	0 (0)	0 (0)	15.50**
Rarely	10.1 (25)	5.8 (6)		13.0 (13)	5.8 (6)	
A little	57.3 (142)	36.5 (38)		53.0 (53)	36.5 (38)	
A lot	32.7 (81)	57.7 (60)		32.0 (32)	57.7 (60)	
No response	0.8 (2)	0 (0)		2.0 (2)	0 (0)	
Concern about excessive intake of calories, salt, and fat						
Never	0 (0)	1.9 (2)	8.39	0 (0)	1.9 (2)	8.74
Rarely	8.0 (20)	7.7 (8)		10.0 (10)	7.7 (8)	
A little	50.0 (125)	40.4 (42)		53.0 (53)	40.4 (42)	
A lot	41.2 (103)	50.0 (52)		35.0 (35)	50.0 (52)	
No response	0.8 (2)	0 (0)		2.0 (2)	0 (0)	

1) Values are % (number)

*: p < 0.05, **: p < 0.01, ***: p < 0.001

대 한국인가정의 남성과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음식의 종류나 순위가 유사하였다.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의 경우 1위 김치찌개, 2위 삼겹살, 3위 불고기, 된장찌개, 5위 김치, 6위 미역국, 7위 순두부, 9위 생선조림, 돼지갈비, 고등어조림, 멸치볶음, 육개장, 생선회 순인 반면,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1위 쌀국수, 2위 삼겹살, 3위 김치, 4위 후라이드 치킨, 5위 김치찌개, 탕 요리, 7위 과일, 된장찌개, 9위 국수, 김, 두부, 샤브샤브, 생선구이, 삼계탕, 생선조림, 새우, 소고기탕, 채소의 순으로 30대 이하 한국인가정의 여성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출신국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끼리는

선호음식이 거의 비슷하고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만 한식 이외의 음식(쌀국수, 후라이드 치킨, 샤브샤브)이 순위 내에 올라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식생활-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양상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식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본인이 생활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월평균 식비, 월평균 식비 중 모국 음식의 식재료에 지출한 비용, 모국 음식을 먹는 빈도(집

Table 7. Food preferences (5 multiple responses)¹⁾

30, 40's Korean males in Korean family (n = 100)			Korean husband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Under 30's Korean females in Korean family (n = 100)			Vietnamese wives of multicultural family (n = 104)		
Total: 500			Total: 520			Total: 500			Total: 520		
No response: 332			No response: 370			No response: 342			No response: 346		
1	soybean paste stew	4.2 (21)	1	Kimchi stew	2.9 (15)	1	Kimchi stew	7.8 (39)	1	Pho	2.1 (11)
2	Kimchi stew	3.2 (16)	2	soybean paste stew	2.3 (12)	2	grilled Samgyeopsal	3.8 (19)		(rice noodle soup)	
3	Naengmyeon	1.4 (7)		grilled Samgyeopsal			(pork belly)		2	grilled Samgyeopsal	1.7 (9)
	(cold noodles)			(pork belly)		3	Bulgogi	1.8 (9)		(pork belly)	
4	braised belt fish	1.2 (6)	4	Kimchi	1.3 (7)		(marinated beef)		3	Kimchi	1.3 (7)
	seafood stew		5	chicken	1.2 (6)		soybean paste stew		4	Fried chicken	1.2 (6)
6	grilled Samgyeopsal	1.0 (5)	6	tofu	1.0 (5)	5	Kimchi	1.6 (8)	5	Kimchi stew	1.0 (5)
	(pork belly)		7	dried laver	0.8 (4)	6	seaweed soup	1.0 (5)		soup	
	Cheonggukjang			fish		7	soft tofu stew	0.8 (4)	7	fruits	0.8 (4)
	(fermented soybean		9	Gamjatang	0.6 (3)		Cheonggukjang			soybean paste stew	
	paste stew)			(potato & pork rib soup)			(fermented soybean		9	noodles	0.6 (3)
8	seaweed soup	0.8 (4)		pork		9	braised fish	0.6 (3)		dried laver	
	Kimchi			Galbi (pork rib)			Galbi (pork rib)			tofu	
	Galbi (pork rib)			Pollack stew			braised mackerel			Shabu-shabu	
	braised mackerel			Spicy fish stew			sauteed anchovies			broiled fish	
	Yukgaejang			Sundaeguk			Yukgaejang			Samgyetang	
	(hot spicy beef soup)			(Korean sausage soup)			(hot spicy beef soup)			(chicken soup)	
	Sashimi			broiled fish			Sashimi			braised fish	
	Japchae			Sashimi						shrimp	
	Jokbal			seafood stew						beef stew	
	(glazed pig's feet)									vegetable	

1) Values are % (number)

Table 8. Frequency of Vietnamese food consumption¹⁾

At home		Dine out	
None	26.0 (27)	None	33.7 (35)
< 1 / week	3.8 (4)	Sometimes	1.0 (1)
1 / week	39.4 (41)	1 / month	33.7 (35)
2 / week	16.3 (17)	2 / month	18.3 (19)
3 / week	1.9 (2)	3 / month	9.6 (10)
4 / week	1.9 (2)	4 / month	1.9 (2)
5 / week	4.8 (5)	> 4 / month	1.9 (2)
> 5 / week	5.8 (6)		

1) % (number)

또는 외식), 모국 음식의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장소의 접근성 등을 알아보았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언어문제 34.6%(36명), 자녀양육 15.4%(16명), 경제적 어려움 12.5%(13명) 등의 순이었으며, 음식은 불과 1.9%(2명)로 매우 낮았다.

생활비 관리 면에 있어 생활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51.9%(54명)였으며, 그 금액은 30만원 이하 57.4%(31명), 30-50만원 22.2%(12명), 50-100만원 9.3%(5명), 100만원 이상 3.7%(2명)이었으며 평균 36.94만원(표준편차 36.30만원)이었다.

월평균 식비의 경우 30만원 이하 44.2%(46명), 30-50만원 32.7%(34명), 50-100만원 19.2%(20명), 100만원 이상 1.0%(1명)이었고 그 중 모국 음식의 식재료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은 10%이하 35.6%(37명), 10-30% 43.3%(45명), 30-50% 14.4%(15명), 50%이상 3.8%(4명)이었다.

모국 음식인 베트남 음식을 먹는 빈도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가정에서는 모국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는 비율이 26.0%(27명)이었고, 주 1~2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81.7%, 85명). 외식을 하는 경우, 모국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는 비율이 33.7%(35명)이었고, 월 1~2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51.9%, 54명). 가족이 외식할 때 자주 가는 음식점을 살펴보면 한식당(85.6%, 89명)이 대부분이었고 베트남 식당은 1.9%(2명)로 거의 가지 않는 편이었다. 또한 대부분(88.5%, 92명) 모국음식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구입장소는 걷거나 차로 30분 이내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의 식생활관련 행태, 의식, 선호음식 양상을 한국인가정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환경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

고, 결혼이주여성의 구체적인 식생활 양상들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들이 한국에서의 식생활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은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남편, 아내 모두 한국인가정의 남녀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각각 $p < 0.001$), 그 중 한식을 먹는 비율 또한 한국인가정의 남녀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각각 $p < 0.01$). 또한, 가정에서 직접 준비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도 한국인가정의 남녀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각각 $p < 0.0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이 한국인가정에 비해 가정중심, 한식중심의 직접 조리해먹는 식생활 즉, “집에서 직접 준비한 한식으로 구성된 식생활”을 하고 있어 보다 전통적인 한국식 식생활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Turrell & Kavanagh (2005)이나 Raberg Kjollesdal 등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구매 행태나 식품섭취 패턴 등으로 나타나는 식생활 특성들은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Park 등 (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빈도 및 외식비 지출액이 높다고 하였고, Kim (1998)은 도시 가계의 외식비에 대한 연구에서 주부가 취업한 가계가 취업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외식비 지출 총액, 소비 내 외식비 지출 비중, 식비 중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식료품비와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거주가구·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외식비 지출이 많고, 식품별로 보았을 때는 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 Lee 1995). 또한 Chung (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가구는 서구적이며 고가의 고품질 식품에 대한 지출 성향이 높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가구는 전통적인 식품에 대한 지출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한국인가정에 비해 성장지역에 있어 읍·면 지역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았고, 가계소득수준이 월 30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률은 낮은 편이었다. 남성들의 취업률은 비슷하였으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이 한국인가정의 여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남녀 모두 한국인가정의 남녀에 비해 노동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미루어볼 때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사회환경적 특성은 다문화가정이 외식빈도가 낮은 가정중심의 식생활을 하고, 전통적인 한식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데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세 때 성장지역은 식생활이 정착하는 시기(Parrish 1971)의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현

재의 식생활양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식생활관련 의식 중에서 음식 선택 시 최우선으로 하는 요인은 남성들의 경우 두 가정 모두 ‘맛’, ‘건강’ 순으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다문화가정의 남편이 동일 연령대 한국인 가정의 남성보다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들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이 동일 연령대 한국인가정의 여성보다 특히 ‘건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남성들간의 차이는 한국인가정과 다문화가정간의 가계소득수준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이 갖는 특성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남편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im(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요인 중 ‘맛’은 20, 30대가 가장 많이 추구하고 ‘건강’은 30, 40대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즉,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은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음식 선택 시 남편의 연령대를 고려함에 따라, 보통 20대가 추구하는 ‘맛’보다 30, 40대가 추구하는 ‘건강’을 더 우선시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Kim(2010)의 연구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한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에 비추보면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이 보다 한식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것도 다문화가정 부부의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양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한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이 관심도가 높다. 이는 음식을 직접 조리해먹는 식생활의 영향으로 직접 조리하는 비율이 높은 그룹에서 영양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선호음식의 경우 한국인가정의 남성, 여성, 다문화가정의 남편, 베트남 여성 네 그룹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을 제외한 세 그룹은 유사한 구성을 보였다.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만 쌀국수, 후라이드 치킨, 샤브샤브 등의 음식들이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출신문화권의 음식에 대한 선호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선호음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인가정보다도 비교적 한국식 식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 편입되어, 주체적인 식생활을 하기보다는 남편 가정의 방식에 따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모국음식을 접하는 빈도에서도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음식의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고 구입장소의 접근성도 30분 이내로 좋았음에도 모국음식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가정 또는 외식에서 모국음식을 먹는 빈도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가정의 식사를 담당하면서도 본인이 선호하는 모국음식을 거의 접하

지 못하고 한식중심의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음식 선택에 있어서의 비주체적인 식생활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Kim 2008; Kim 등 2009). Hwang 등(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비주체적인 식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영양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인가정의 남녀는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다문화가정 부부는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주지역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식생활 양상을 완벽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인가정과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특성을 분석하였고, 또한 한국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교육 및 가계소득 수준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사회환경적 특성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을 파악하였다. 다만, 사회환경적 특성까지 동일한 한국인 가정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 가정의 식생활 특성만을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한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체의 식생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다문화가정이 가지는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인 59.7%,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해,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전체 평균 가계소득수준이 약 38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성향을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도,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42.3%,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20.6%로(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고등학교 학력 44%, 대학교 이상 학력이 32%인 한국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8).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수준이 한국인가정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현실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실제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의 식생활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추후 식품섭취빈도조사(FFQ) 또는 24시간 회상법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식이섭취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하게 식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친 1, 2차 조사를 통해 한국인가정의 기혼남녀 500명과 베트남인-한국인 배우자 104쌍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식생활관련 행태, 의식, 선호음식 양상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음식에 대한 접근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부부는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남편의 경우 하루 2회가 52.9%, 아내의 경우 하루 3회가 57.7%로 가장 많았고, 그 중 한식을 먹는 비율은 남편의 경우 95% 이상이 48.1%, 아내의 경우도 95% 이상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에서 직접 준비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은 남편의 경우 95% 이상이 46.2%, 아내의 경우도 95% 이상이 38.5%로 가장 많아 한국인가정의 남녀와 각각 비교했을 때 유의적으로 높았다.

2. 음식 선택 시 최우선으로 하는 요인은 다문화가정의 남편은 한국인가정의 남성에게 비해 '경제성'을 고려하고 있었고,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아내는 한국인가정의 여성에게 비해 '건강'을 특히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 하루 식사량, 열량·염분·당분·지방 등의 과다 섭취 등 영양에 대한 관심도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전반적으로 한국인가정의 남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선호음식은 한국인가정의 남성, 여성,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경우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김치 등의 한식 중심이었으나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아내의 경우는 쌀국수, 후라이드 치킨, 샤브샤브 등의 음식도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음식의 식재료에 지출한 비용은 10% 이하 35.6%, 10-30% 43.3%이었고, 모국음식을 섭취하는 빈도는 가정에서의 경우 대부분 주 1~2회, 외식을 하는 경우 대부분 월 1~2회였다. 또한 대부분은 (88.5%, 92명) 모국음식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고 답했고, 그 구입장소는 걷거나 차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가정에 비해 가정중심, 한식중심의 직접 조리해먹는 비교적 전통적 한국식 식생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읍·면 지역에서의 성장, 낮은 교육 및 가계소득수준 등 다문화가정이 가지는 사회환경적 특성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특성은 주로 결혼이주여성보다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배우자의 사회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한국인가정보다도 전통적인 한국식 식생활을

가진 가정으로 편입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식 식생활로의 적응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비주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향후 식품섭취빈도조사 또는 24시간 회상법 등을 통해 이들의 식생활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Cho YA (2010): A study on evaluation of food behavior and nutritional risk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in Korea.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pp. 50-53
- Choi JH, Lee GI (1995): The study on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food consumption patter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pp. 19-39
- Chung ES (2004):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food expenditure pattern of urban household. Nonghyup Monthly Report 557: 1-18
- Hanh TTM, Komatsu T, Hung NT, Chuyen VN, Yoshimura Y, Tien PG, Yamamoto S (2001): Nutritional status of middle-aged Vietnamese in Ho Chi Minh city. *J Am Coll Nutr* 20(6): 616-622
- He J, Klag MJ, Wu Z (1996): Effect of immigration and related environmental changes on serum lipid levels in southwestern Chinese men. *Am J Epidemiol* 144(9): 839-849
- Hiroyasu ISO, Aaron RF, Kenneth K (1989): Hemostatic variables in Japanese and Caucasian men. Plasma fibrinogen, factor VIIc, factor VIIIc, and von Willebrand factor and their relations to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Am J Epidemiol* 130(5): 925-934
- Huang B, Rodriguez BL, Burchfiel CM, Chyou PH, Curb JD, Yano K (1996): Acculturation and prevalence of diabetes among Japanese-American men in Hawaii. *Am J Epidemiol* 144(7): 674-681
- Hwang JY, Lee SE, Kim SH, Chung HW, Kim WY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s associated with inadequate dietary intake 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J Am Diet Assoc* 110(5): 779-785
- Kim BR (2008): The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and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of immigrant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pp. 34-35
- Kim JM, Lee NH (2009):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of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Daegu area. *J Korean Diet Assoc* 15(4): 405-418
- Kim KH (2010): Effect of a food-related lifestyle on the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with Korean foods, and intention to revisit. *Korean Contents Soc* 10(8): 370-380
- Kim MS (1998):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of the urban household : Effect of wife's employment.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10-18
- Kim SH, Kim WY, Lyu JE, Chung HW, Hwang JY (2009):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 their diets. *Korean J Community Nutr* 14(1): 22-30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1): The stat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Available from <http://www.immigration.go.kr> [cited 2012 April 14]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8): Korean Education at a Glance (KEAG). Available from <http://cesi.kedi.re.kr> [cited 2012 September 21]
- Lyu JE (2008) Dietary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pp. 51-61
- Lyu JE, Yang YJ, Lee SE, Chung HW, Kim MK, Kim WY (2009): Nutritional statu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Korea in relation to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Ann Nutr Metab* 55: 317-324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vailable from <http://www.mw.go.kr> [cited 2012 September 21]
- Park HR, Lee KY, Ryu JS (1997):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patterns by income levels using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J Community Nutr* 2(4): 633-646
- Parrish JB (1971): Implication of changing food habits for nutrition educators. *J Nutr Educ* 2(4): 140-146
- Raberg Kjollesdal MK, Holmboe-Ottesen G, Wandel M (2010): Associations between food patterns, socioeconomic position and working situation among adult, working women and men in Oslo. *Eur J Clin Nutr* 64(10): 1150-1157
- Statistics Korea (2011):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 trends in the first quarter 201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cited 2012 September 21]
- Turrell G, Kavanagh AM (2005): Socio-economic pathways to diet: modell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position and food purchasing behavior. *Public Health Nutr* 9(3): 375-383
- Yang EJ, Chung HK, Kim WY, Bianchi L, Song WO (2007): Chronic diseases and dietary changes in relation to Korean American's length of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J Am Diet Assoc* 107(6): 942-950
- Yang W, Read M (1996): Dietary pattern changes of Asian immigrants. *Nutr Res* 16(8): 1277-129